

DB 지적재산권의 최근 동향



조동성 / 한화그룹경영기획실 이사

DB에 대한 법적보호 성격

DB에 대한 법적보호의 성격은 크게 DB서비스 제공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DB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DB구축에는 상당한 지적, 조직적 노력과 재정적 투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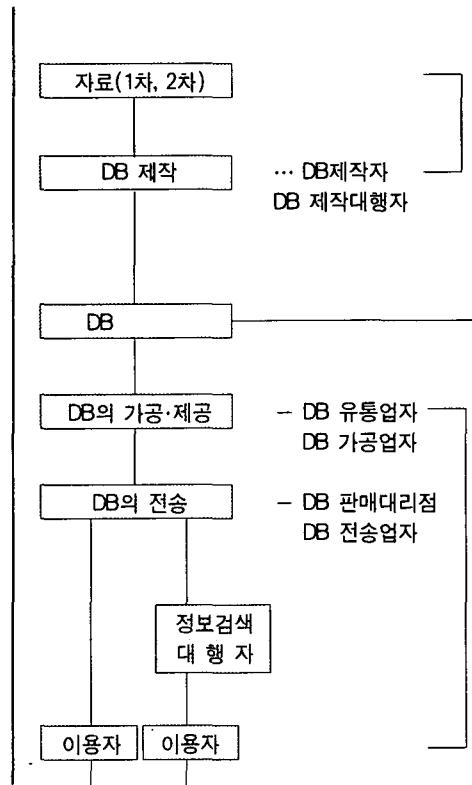
필요하며 DB를 자체 개발한 경우 타인에 의한 무단 이용이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를 꺼리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필요한 DB를 각자 개발해야 하므로 중복투자가 행하여지게 된다.

따라서 DB구축자에게 일정기간 DB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량의 증가와 전달, 가공비용의 저하에 따라 생산된 정보와 소유권을 주장하고 댓가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기업과 정보를 쉽게 얻고 싶어하는 사회 제부문의 요구와의 사이에 대립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충되는 요구의 타협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와 이를 근거로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는 행태인 점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로 대두되는 것이 보호의 대상 독창성 요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저작권적 문제이다. DB에 수록된 정보나 자료에 있어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과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학술논문, 신문 기사, 법령 등의 전문 또는 초록이나 요약을 담을 수도 있으며 통계수치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학술논문 등을 주제별, 저자별, 제품별로 구분한 색인형태의 서지정보를 만들 수도 있다. 어떤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또한 DB제작과정에서 창작적 노력이 가미되어 DB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창작성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과장에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어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양쪽 모두를 인정하여 DB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DB에 수록된 정보나 자료가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자 또는 저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

데이터베이스 제작, 유통과정 중 각 단계에 나타나는 법적 문제



문제점

- 1) 보호의 대상 : 독창성
 - DB에 수록된 자료의 저작물성에 상관 없이 DB 자체가 보호대상이 되는가
- 2) 보호의 주체
 - 저작권의 권리행사가 다수의 개인이 참여하는 DB에 있어서 모호한 점
- 3) 1차자료를 DB화하는 입력과정이 저작권법의 “복제”에 해당하는가
- 4) 보호의 대상 : 용어의 정의
- 5) 권리의 발생
- 6) 유통과정에서의 각 사업자간 분쟁 해결
- 7) 보호의 내용
 - 보호의 범위
 - 복제권, 송신권
 - 번안권(2차적 저작물)
 - 구술권, 상영권, 연주권, 공표권
 - 면책범위
 - 비자발적 실시

장도 있다.

두번째로는 보호의 주체가 모호한 점이다. 대개의 경우 DB제작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따라서 개인이 DB를 제작하기 보다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같은 단체에서 기획하여 제작하게 된다. 이 제작과정에는 물론 다수의 개인이 참여하게 됐을 때 DB라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DB라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세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DB제작과정에 참여한 다수의 개인을 공동저작자로 하여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것, DB제작 비용을 부담하는 제작자가 직접 저작자가 되는 것, DB제작 비용을 부담하는 제작자가 직접 저작자가 되는 것, 다수의 개인이 DB의 일정

한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그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 등이다.

세번째는 저작권법상 “복제”的 여부이다. 이것은 1차 자료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DB에 대한 입력이 저작권법으로 정하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문헌정보의 경우 DB구축시 색인, 초록, 전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문의 경우에만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록의 경우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2차적으로 저작물이라 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네번째로는 보호의 대상이 개별 데이터인가 또는 정보의 집합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보호의 대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해결이다. 그

외에도 법적인 권리발생이 언제 개시되는가 하는 권리의 발생시점 유통과정에서 가공, 보완, S/W 추가등이 가능함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해결제도, 보호의 범위, 면책범위, 비자발적 실시 등 보호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호의 범위로서는 크게나누면 복제권, 송신에 관한 권리, 변형에 관한 권리, 음성, 영상형식에 의한 출력에 관한 권리, 저작자 인격권등이 있을 수 있으며, 면책범위로는 저작권법에서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하여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DB의 지적재산권(IPR)관련 이슈

(1) 보호대상

DB수록내용

-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저작권법으로 보호
-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DB 자체

저작권법

- 독창성(편집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일반 편집 저작물로 인정 : 저작권법으로 보호
 - 별도 규정 - DB저작물(일본) :
 - 저작권법으로 보호
 - 카탈로그나 데이터수집물(덴마크등)
-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규정
- 비저작권법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계약법, 비밀보호법, 부정경쟁 방지법, 독점금지법, ...)

* DB의 IPR을 저작권법으로 해결하고자 때에는 “독창성(창작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최근 EC에서는 DB의 지적재산권을 저작권법과 SUI GENERIS 이중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 IPR의 귀속

— DB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개인
- 다수의 개인
 - 다수의 개인을 공동 귀속자로
 - DB제작자를 귀속자로
 - 다수의 개인을 귀속자로 하되 DB제작자에게 권리양도
- 단체

— DB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DB제작자가 저작자로부터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받아 행사(사적계약 또는 특별한 법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무단 복제 방지
- DB제작자를 저작인접권의 주체로 인정 (특별법 내지는 저작권법상의 특별규정 필요)

3) IPR의 발생 시점

— 무형식 주의

「저작 사실」에서 저작권 발생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 방식주의

저작물의 납본·등록으로부터 발생
미국의 구법, 라틴아메리카 등 [DB]